

	<b>인도네시아(자카르타) 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원정 소장
		일시	2024. 1.

## CEPA Insight

- 인도네시아, 글로벌 이슬람 경제 지표 3위 차지
- 2024년 원화·루피아화 직거래 도입한다... “양국 교역확대 촉진”
-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 5년 복수 비자 시행

### < 2023년 12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665,209천불	△11.1%	1,106,614천불	△26.8%	△441,405천불
충남	60,613천불	56.2%	81,725천불	0.1%	△21,112천불
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## ■ 인도네시아, 글로벌 이슬람 경제 지표 3위 차지

“인도네시아가 2023 세계 이슬람 경제 현황에서 3위를 차지했다.”

- 12월 26일 발표된 세계 이슬람 경제 현황(SGIE-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)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, 2023년 세계 이슬람 경제 지표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3위로 전년보다 한 순위 상승함.
- 에릭 토히르(Erick Thohir) 국영기업부 장관 겸 협회장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금융, 할랄 식품, 할랄 패션 화장품, 의약품, 미디어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상위 10위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언급함. 특히, 할랄 식품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위, 할랄 의류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함. 이슬람 금융은 7위, 미디어 및 레크리에이션은 6위, 할랄 화장품 및 의약품은 5위를 기록함.

## ■ 2024년 원화·루피아화 직거래 도입한다... “양국 교역확대 촉진”

“수출입 기업 거래 비용 절감하고 환리스크 완화로 교역 촉진 효과”

-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(Bank Indonesia) 총재와 내년 중 양국 통화 직거래(LCT) 체제를 도입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함.
- 이창용 총재와 페리 와르지요 총재의 만남에 양국 간의 무역 결제에서 로컬 통화 활용을 촉진하는 LCT 체제 도입이 교역 촉진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.

- 이 총재는 인도네시아의 첨단분야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강조했으며, 와르지요 총재는 LCT 체제 도입으로 한·인도네시아 직거래 환율을 활용하여 결제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함.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양국 중앙은행 간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이를 구체화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임.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양국 간 민간은행의 직거래로 인한 거래 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완화를 기대함.



## ■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 5년 복수 비자 시행

“온라인 신청 결제 가능... 최대 60일 체류 가능”

- 12월 8일 기준 관광창조경제부(Kemenparekraf)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 목표인 850만명보다 16% 증가한 986만명을 기록함.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, 기업인과 관광객을 위한 5년 복수비자가 시행됨.
- 12월 21일 이민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D1 및 D2 5년 복수 입국 비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함.
- D1 비자는 관광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, D2 비자는 특별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됨.
- D1 및 D2 5년 복수 입국 비자는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'evisa.immigration.go.id' 온라인을 통해 복수 입국 비자를 신청 가능함.

## ■ 시사점

- 최근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할랄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어 국내 기업은 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. 또한 할랄인증이 필요할 제품들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신중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.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통화 간 직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역 거래를 추진 시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. 더욱이 5년 복수 비자 시행 등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 이전보다 개방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 끝.